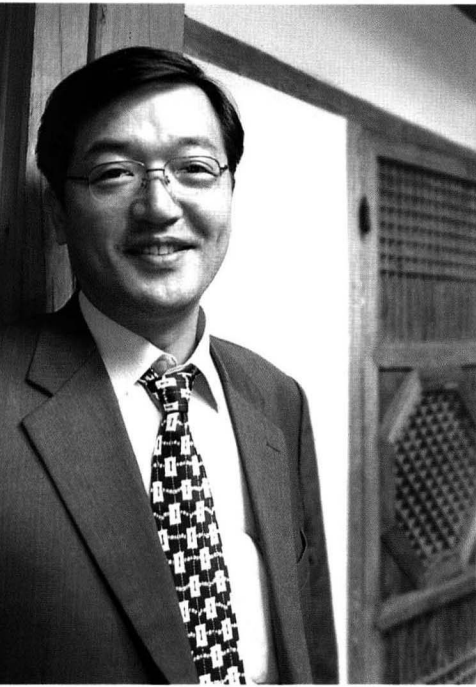


# 철학전공 저널리스트의 뜻있는 외도, 청년 세종의 생을 펼쳐 보이다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이한우 지음 | 동방미디어 | 402쪽 | 값 14,500원



언론인 이한우 씨(42·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저서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는 세종의 전기도 평전도 아닌, 드라마틱한 한편의 다큐멘터리 보고서다. 국역된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청년 세종의 삶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저자의 맛깔스런 입담과 정연한 논리를 더해 조선 500년 역사의 인프라를 구축한 세종의 면모를 유장하게 담아낸다. 조선의 많은 왕들 가운데 세종이 선택된 데는 현대사의 흐름을 기민한 추수로 감지해 내는 저널리스트 이력이 한 몫을 거들었다.

“세종이 즉위했던 때의 조선의 정세가 현재 한국 정세와 비슷합니다. 건국 이후 40~50년이 흐른 배경도 흡사하구요. 국가건설의 기간을 장기적으로 널리 내다본 세종의 정치적 안목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실문제만 놓고 양양불락, 매섭게 노려보는 세태를 떠나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았는데, 마침 그곳에 세종이

있었던 거죠.”

그에 따르면 세종은 열린 태도를 항상 견지하며 평생을 학문 수양에 전념한 인물. 조선시대 사회적 병폐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세종이 그들을 조화롭게 갖췄기 때문이다. 세종은 학자들이 빠질 수 있는 성급함의 오류를 논리를 갖춰 지적했고, 좌파의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자신이 뜻한 바를 느긋하게 펼쳐 보였다. 이한우 씨는 세종의 독특한 성품으로 은근함과 담백함을 꼽는다. 한 시대 대변혁을 일으킨 인물이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막무가내로 외쳤던 사람이나,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자문자답. 깊이도 없이 찰박찰박, 한 시대를 폄하하는 이들만 가득한 작금의 세태 속에 세종형 지도자를 꿈꾸어보는 것은 결코 헛된 욕심만은 아닌 것이다.

“세종의 리더십을 제대로 실현한 지도자가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집행능력이 출중했던 박정희는 국가건설을 시작하며 그린벨트라는 개념을 공표했지요. 문화재 인식도 박정희 시대에 온전히 갖춰진 것입니다. 국가건설을 위한 장기적 안목은 두 지도자의 공통분모이며, 그것을 밀고 나갔던 파워 역시 견주어 볼 만합니다. 세종을 말하며 문종쪽 계통에만 통달한 인물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국가의 주권확립과 영토확장에 진력한 치적 역시 세종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저작에서 세종의 치적을 높이 사는 단견을 버리고 치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세종의 인간적인 면

을 담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철학전공자로서 한 개인의 ‘정신적인 진행’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라는데, 그 속에는 역사전공자들에 대한 거부감도 얼마간 자리하고 있다. 한 시대를 말함에 있어 그 배후의 사건과 개인에 대해 천착하지 않는 그들의 방법론을 책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개인을 제쳐두고 사건만을 얘기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인간경시의 풍조이듯, 사건을 제쳐두고 시대만을 부각해 발언하는 것은 정론이 아니라 한다. 시대를 말할 때는 사건의 복잡다단한 의미소들을 짚어 그 배경을 확실히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제 본업에 주력해야죠. 최근 《여성철학자들》이란 독일의 철학서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철학사에 주요 인물로 회자되지는 않지만, 숨어 있는 여성철학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철학적 기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쪽지의 원고, 두 달에 한 번 칼럼을 쓰고, 번역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종에 관한 저작을 그는 외도라 말하는데, 의미 있는 저작을 위한 외도라면 또 다른 외도를 부추기고 싶은 것 역시 헛된 욕심만은 아닐 테다. 그 기대를 알고 있다는 듯, 그의 외도는 성종으로 다시 한번 이어진다. 조선시대를 꽃피운 성종이라고 하나 그에게 있어 성종은 조선시대를 무너뜨린 인물로 정의된다. 성종에 관한 실감나는 다른 한편의 다큐멘터리 보고서는 2~3년 뒤 선보일 예정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